

보 도 해 명 자 료 (‘17. 12. 1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원전 수출 따왔더니 검찰 수사인가”(‘17.12.11, 중앙)

1. 기사내용

- ☐ 한전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 ‘우선협상대상자’ 선정에 대해 청와대와 산업부의 반응은 떨어름함.
- ☐ 청와대와 산업부에서는 “손해날 것 같으면 안한다”, “적자가 예상되면 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잃게된다”는 식의 애매한 말들이 흘러나옴.
- 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날 한전사장은 임기 3개월 남기고 사퇴 선언을 하는 등 원전 비즈니스 베테랑들을 죄인 다루듯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☐ 산업부는 거듭 밝혀왔듯이 금번 한전의 우선협상대상자(preferred bidder) 선정을 환영한다는 명확한 입장이며, 동 사업이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임
- ☐ EPC* 사업 방식인 UAE 원전 사업과는 달리 영국 무어사이드 신규 원전 건설·운영 사업은 공급자가 자금을 조달하고, 이의 운영과정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, 사업의 수익과 함께 리스크도 사업자가 책임지는 IPP(Independent Power Producer) 방식이고,

* EPC : Engineering, Procurement and Construction

- 한전의 뉴젠社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원전수주 확정이 아닌 인수 협상을 위한 본격적인 시작단계이므로 국익 차원에서 향후 수익성과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임
- 또한, 향후 한전-도시바간 주식매매계약(Share Purchase Agreement)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고, 이와 관련하여 영국정부로부터 최대한의 지원방안을 이끌어 내는 협상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, 협상 전략 측면의 고려도 필요한 시점임
- ☐ 한편, 한전 사장의 사퇴나 한수원 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 등은 동 사안과 관계가 없는 사안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 김 진 과장 (044-203-5330)
김성건 사무관 (044-203-5332)